

# 울고 웃으며 수행담 나누니 '한마음'

### 한마음선원, 10월 24일 '마음공부실천마당' 개최

“중2 아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 순간 심장이 덜컥 했어요. 난 1등 엄마가 아니면서 아이에게 1등만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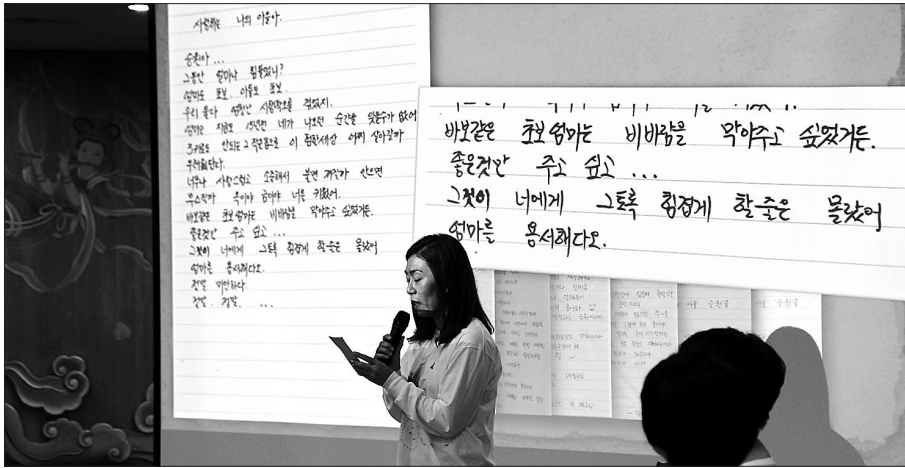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강민주 보살은 사춘기 아들과 갈등을 풀기 위해 ‘편지’라는 방법을 택했다. 강 보살이 당시 쓴 편지를 읽자 스님들은 물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누구나 겪었을 자녀와 갈등에서 더 이해해주지 못한 속상함과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혼자 마음수행하는 것은 쉽지만 타인에게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스스로 터득한 마음공부실천법을 공유하며 함께 배우는 장이 펼쳐졌다.

조계종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0월 2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마음공부실천 나눔의 한마당’을 개최했다. 23일 학술세미나에 이어 ‘2015한마음학술제’ 이틀간 행사로 마련된 마음공부실천마당에는 부산·진주·중부경남·대구·청주·독일지원 불자들을 비롯해 7백여 명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첫 번째 장은 ‘하루살이 씨앗’을 주제로 부산지원이 열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는 고민에서 마음공부실천을 시작한 부산지원학성회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육바라미에 따라 6가지 서원을 세우고 하루하루 실천했다.

부산지원 이상민씨는 “첫째아이에게 큰 기대를 하다 보니 잔소리가 심해졌고,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래 없던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다”며 “마음이 많이 아파 매일 108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후 딸과 소통하려 많이 노력했고, 지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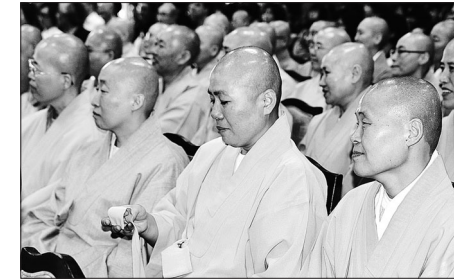
조계종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0월 2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마음공부실천 나눔의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지원 강민주 보살은 사춘기 아들과 갈등을 풀기 위해 매일 아침 편지를 건네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 2015한마음학술제 일환 전국지원서 7백여 명 참석 독일서 실천한 마음수행담도 사례·발표·연극 등 방법 다채

아이 버릇도 고쳐져 함께 네일아트를 하러 다닐 정도로 가까워졌다”며 웃어보였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진주지원은 상주 중무원들의 진솔한 실천 수행담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다. 절에서 함께 생활하며 느꼈던 불편, 갈등 등을 정겨운 사투리로 토로하자 장내는 웃음바다가 됐다. 진주지원 중무원들은 “일하다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것은 잠깐 뿐이다. 금방 또 좋아져서 정이 더 돈독해진다”며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법은 없다”는 대행 큰스님 법어를 마음에 새기며 마음공부를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지원에서 온 사비네 슈타이어, 모리츠 에플레, 이승호씨는 불교에 입문한 계기와 더불어 독일에서 실천한 마음공부



불자들의 회고애락이 담긴 수행담이 소개될 때마다 장내는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다.

수행담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하이델베르크대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모리츠 에플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순례방문 때 대행 큰스님을 만난 일화를 털어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자 조그마한 모리츠 모습과 큰스님을 향한 그리움이 뒤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모리츠는 “큰스님 법문을 듣고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공부를 알게 하고 싶다’며 방법을 여쭙자 친절히 설명해주셨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린다”고 회고했다. 이어 모리츠는 “타인과 소통할 수 없는 이유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끊임없이 참 나를 찾는 과정에서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사비네 슈타이어는 “인구 80%가 기독교인 독일에서 불교를 믿으며 ‘이단’이란 자책감이 들 때도 있었다”며 “나는 기독교 안에서 태어나 한마음선원 안에서 자라났다. 종교를 떠나 그저 진리를 찾는 사람(Wahrheitssucher)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비네는 “대행 큰스님을 만나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관법은 내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웃어보였다.

아울러 중부경남지원은 ‘관하는 남자’를 주제로 연극을 선보였다. 염태대왕,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실수로 저승으로 데려온 48세 남성, 비구니 스님 등을 주인공으로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관법의 비밀’을 풀어가는 내용이다. 극 중 비구니 스님은 저승사자가 관하는 법을 묻자 “삶의 주인공은 ‘나’이자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자신만 내세워선 안 되고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을 바로 보아야 한다”며 “마음으로 관(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밖에도 대구지원은 약기공예 등 평소 지원 내 청원당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개했으며, 한마음과학원 황수경 박사는 ‘한마음의 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청주지원은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선과 악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라는 교훈의 연극을 펼쳐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수행실천담을 발표·연극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울산지원 이명희(여·48)씨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사소한 갈등·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얘기를 들으니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며 “내가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 아이, 남편, 지인들을 위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신행 · 포교 소식

### 중앙신도회, 10월 24~25일 워크샵

#### 네트워크 활성화 모색, 엄홍길 씨와 교류산행 및 삼사순례 진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는 10월 24~25일 조계종 산악회(회장 엄홍길)와 함께 1박 2일간 서울 화계사 및 북한산 일대에서 워크샵을 겸한 신도단체 교류산행 및 삼사순례를 진행했다.

먼저 첫째날인 24일에는 행사는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입제식과 함께 단체 체력 운동사업 논의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의 환영법문과 이기홍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중앙신도회 SNS조직 활동에 대한 브리핑과 2014년 신도법개정안에 대한 설명 등이 진행됐다.

입제식에 이어 단체별 네트워크링 프로그램 모색의 시간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샵에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체육인불자연합회, 한의사불자연합회, 서울메트로법우회 등 종단등록 신도단체 11개와 유관단체 2개 총 11개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 등 약 70여명이 참가했다.

둘째날인 25일에는 엄홍길 조계종산악회 회장과 함께 신도단체 교류산행이 진행됐다. 산행은 도선사에서 출발해 중흥사, 노적사 삼사순례가 이어졌다. 엄홍길 산악회장은 “앞으로 신도단체별 네트워크링 할 수 있는 교류산행의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포교원, 전국 경승 초청 세미나 개최

#### 10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서... '경찰 맞춤 포교법' 전수

불법(不法)을 근절하고자 몸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위해 불법(佛法)을 호포하는 경승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대행 송묵)은 10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조계종 경승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찰전법담당 원병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경승 스님 1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입제식에 이어 붓다코칭, 교류의 밤, 자유토론 등 진행됐다.

특히 붓다코칭 시간에는 박철수씨가 강사로 나서 경찰관내서 법외 방법, 경찰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등 현장 포교법을 배웠다.

포교원은 “경찰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부처님 법에 의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승 스님들의 역할은 지대하다. 이에 경찰불자 및 경승 스님들의 고견을 듣고,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 다문화가정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지혜로운여성, 11월 5~26일 전문자원봉사자교육 실시

다문화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공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박순이)은 운영하는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단장 구안자)은 11월 5~26일 서울 수송동에 위치한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에서 ‘제8회 다문화가정지원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서정에 동국대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원의 ‘한국 다문화 사회 이해’ △불교상담교육원 교육

국장 도영 스님의 ‘무재침시를 통한 관개 맺기’ △이옥빈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의 ‘결혼이주여성과의 만남’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의 ‘너와 나를 넘어서 우리로 살기’ 등이다.

특히 3회차 진행되는 결혼이주여성과의 만남은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이옥빈씨의 한국생활에서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한편, (사)지혜로운여성은 매일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소에서 다문화가족법회를 병행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 “지역공동체 포교, 종단·본사·사찰 삼박자 중요”

#### 조계종 포교원, 27일 지역공동체 주제 연찬회

“사찰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존립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불교계는 지역공동체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원에서 포교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지속가능한 불교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포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직무대행 송묵)은 10월 27일 한국불

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5차 포교 정책 연찬회-지역공동체 포교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지역공동체 포교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제를 통해 지역공동체 유형과 공동체를 통한 포교 방안을 조망했다.

김 교수는 지역공동체 포교 방안을 교구차원의 거시적 방안과 일선 사찰의 미시적 방안으로 나눠서 접근했다.

교구차원의 거시적 방안은 △불교 정서 확산을 통한 포교 △지역 브랜드 개발과 관광을 연계 △절기 행사의 사회화 △지역 리더 발굴 및 조직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일선 사찰의 미시적 방안으로는 △스승교도 공동체 조직 활성화 △지역봉사 네트워크 참여 △지역문화단체 육성 및 지원 △영농법인 운영 및 참여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공동체 포교의 1차적 목표는 사찰도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고 사찰이 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에 있다”

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사찰의 각종 교육에 참여하고 실행활동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중앙과 교구본사, 일선 사찰 역량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지역공동체를 통한 포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역의 특성과 변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찰별 지역공동체 포교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중앙총무기관 차원에서는 각 교구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 포교 방안을 수집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포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찰명 四天寺 BEYOND QUADRAN

###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 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증봉

◆ 공연 내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총로) 02)7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제)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91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략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1월 23일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